백두산

5호 - 주체91(2002)년 4월 19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통일태양 받들어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 관철하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90회 탄신절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한민전의 전위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은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와 더불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리라는 열망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김일성**주석님의 평생의 소원이였으며 최대의 심혈을 기울여주신 애국의 위업이였습니다. 오늘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위업은 사상도 영도도 덕망도 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빛나게 계승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뜨거운 민족애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드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두텁게 얼어붙은 분단의 장벽을 녹이시며 7천만 우리 겨레 모두를 통일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조선은 둘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주석님의 통일경륜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조국통일5대방침 등 빛나는 통일방략들을 제시하시어 겨레에게 통일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을 명시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십니다.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운동에 대한 현명하고 세련된 영도가 있으므로해서 우리 민족은 그토록 복잡한 내외정세 속에서도 반통일분열세력의 대결과 분열, 전쟁책동이 그토록 악랄한 속에서도 자신감과 낙관에 넘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한시바삐 안아오시기 위해 영활한 통일지략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신 건 민족통일운동사에 빛날 특기할 공적입니다. 6.15공동선언이 21세기 민족통일의 앞길에 이정표로 우뚝 세워짐으로써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역사의 전환적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사이에 전례없는 대화와 상봉, 협력과 교류 등에서의 눈부신 성공들과 통일 운동의 승리적 전진은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통일노선과 높은 정치실력, 애국 애족의 품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기에 7천만 겨레는 민족최대 기념일을 뜻깊게 맞으며 통일의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성취할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있습니다. 현시기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빠른 길은 첫째도 둘째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고 5월부터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걸 제의한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실천에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러자면 오늘날 우리 민족의 통일진군을 가로막는 엄중한 도전들을 가열찬 투쟁으로 쳐부셔야 합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날을 따라 더 뜨거워가던 한반도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대북강경도발을 일삼아온 미국이 지금은 북에 대고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열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통일의 방해꾼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건 우리 민족이 페부로 절감한 진리입니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미투쟁의 성전에 거연히 일어설 때 민족이 살고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통일도 이룰 수 있음을 자각하고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나운 광풍을 투쟁으로 과감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당면하여 이 땅에서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이며 외세와 공조해서 동족을 주적으로 보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반대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국보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며 통일의 최대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겁니다.

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로 향하는 거세찬 민족사적 흐름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진두에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미국의 발광적인 전쟁책동을 짓부수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7천만 겨레가 우러르고 따르는 통일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서 계십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자긍심을 안고 그분의 향도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총분기함으로써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해서 이 땅위에 자주적인 연방통일국가의 새아침을 안아올줄 굳게 믿습니다.

구국의 소리 논설
주체91, 4월 15일~16일

2 태양절 90돌 특집 5
- 세기를 이끄실 만고절세의 위인
- 위대한 80성상
- 인류사에 남긴 위대한 유산

5 종합
- ≪태양회≫ 태양절기념 결의모임
-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의 토론회 진행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집행위 회의
-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
- **김정일**의 오로라는 강렬했다
- 미국무성 부장관의 발언 비난
- 4.19민중봉기 42주년

8 노작
- 남북연석회의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9 세기와 더불어
- 6장 6절 구국군과 함께

11 노동신문 정론
-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1)

12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하자

13 투쟁보도
- 미국 좋아하지 않는 대선후보는 없을 것?
- F-15K엔진 상호운용성 문제 커
- 면회소 설치 남북 적십자회담 추진
-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제의
- 위선적 ≪주5일 근무제≫ 도입반대 확산
- 울산, 노동자 정치의 메카로 떠오르나

15 운동강좌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가지 논제(4)

세기를 이끄실 만고절세의 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7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는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고 있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지나간 세기와 더불어 우리 민족과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 깊이 회고해보며 주석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우러러 삼가 영생기원의 큰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격동의 20세기와 더불어 주체의 기치를 높이 치켜드시고 오로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이룩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수놓아오신 찬란한 태양의 역사였습니다.

20세기 인류가 낳은 사상이론의 대가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불면불휴의 사상이론활동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역사의 방향과 시대의 진로를 명시하시어 착취와 압박에 억눌렸던 민중이 가슴을 펴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와 미제국주의를 쳐물리치는 가열찬 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의 광복을 안아오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셨으며 지구촌에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의 새 시대를 펼치셨습니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변혁운동의 초행길을 헤치시어 짧은 역사적 기간에 이북에서 주체의 건당, 건군, 건국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2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은 이북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강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으켜 세워 온 인류가 격찬하는 세기적 기적을 창조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십니다.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건국의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를 마치신 그 날까지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무려 8650여일에 걸쳐 2만600여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셨으며 이 기간에 7년 세월과 맞먹는 2530여일의 일요일을 민중을 위한 현지지도에 바치셨습니다.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이북을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민이 낭만과 희열에 넘쳐 보람찬 삶을 누리는 민중복지의 낙원으로 꾸려주셨습니다.

더욱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혁명위업계승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의 종국적 완성과 민족의 무궁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이 영원히 태양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석님께서 우리 민족사와 인류사에 쌓아올리신 공적 중에 대공적입니다.

8.15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민족분열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업적은 새길수록 우리 민중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겨레에게 안겨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원칙과 강령, 방도들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민족을 통일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분기시키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일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서슴없이 걸으셨고 그가 누구이든 애국애족의 열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시고 대해같은 품에 안으시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문서에 고귀한 친필을 남기시고 순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드시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민중의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세계의 사회주의위업과 자주화위업에 거대한 공적을 쌓으심으로써 세계정치의 대원로로 만인의 끝없는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인류역사는 명망높은 영도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세기와 더불어 한평생을 민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당대에 쌓으신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대성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사상과 특출한 영도천품,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다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어 20세기를 태양의 세기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불세출의 전설적 위인이시며 영원한 주체의 태양이십니다.

오늘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사상과 영도도, 덕망도 주석님 그대로이신 21세기의 태양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으며 주석님의 혁명역사는 세기에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경향의 각계 민중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 우리 민중이 그토록 경모하는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영생하시는 길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고 그분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을 기필코 성취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영원한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역사가 천세만세 영원히 흐르도록 해야 할줄 압니다.

구국의 소리 논설
주체91, 4월 15일~16일

위대한 80성상

사회자 : 안녕들하십니까.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고보니 주석님께서 한평생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감명 깊게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해놓으신 불멸의 업적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그럼 어느 분 먼저 말씀해주시죠.

유진명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아시겠습니다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약을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신 때로부터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순간까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이룩하신 업적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먹으로 해서 전해도 못다 전할 실로 다대한 업적인 겁니다.

지구촌을 돌아보면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김일성**주석님처럼 위인적 풍모를 한몸에 체현하시고 한평생 높은 정치 지도력을 훌륭히 발휘하신 그런 위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애하는 주석님은 인류 사상사에 쌓아올리신 사상 이론적 업적으로 보나 영도 업적으로 보나 위인적 품성으로 보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절세의 위인이시죠. 하기에 **김일성**주석님은 비록 서거하셨지만 우리 겨레는 물론 지구촌의 인류는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안고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면서 그분의 한평생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러면 주석님의 한평생의 업적 가운데서 특기할 측면들을 간추려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김일성주석님의 80성상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업적, 이것부터 먼저 꼽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일제식민지노예처지를 개탄하며 시일야방성대곡이 처량하게 울릴 때 도처에서는 독립군, 의병대 등 나라찾는 투쟁이 벌어졌습니다만 다 실패를 했죠. 바로 그러한 시기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드시고 혁명활동에 나서셨고 1932년 4월에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셔서 최신무기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일제를 상대해서 장장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셨어요.

유진명 : 항일전으로 말하면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인 후방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간고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었죠. 그러나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오직 일제의 노예로 사는 우리 겨레를 구원하시려는 일념으로 온갖 시련을 과감히 헤쳐나가셨죠.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식량난, 매일같이 달려드는 적들의 토벌. 정말 파란만장의 역경이 중중첩첩 앞을 막아섰어요. 그뿐이 아니죠. 주석님께서는 항일전의 나날에 사랑하는 부모님도, 동생들도 다 잃으셨잖아요.

윤정원 : 정말 주석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그러한 투철한 신념을 지니시고 인류사에 없는 가장 간고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셔서 마침내 조국광복을 안아오셨는데요. 이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자 :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일성**주석님의 반제자주위업은 항일전쟁에 이어 6.25전쟁을 승리에로 영도하신데서도 실감되지 않습니까.

유진명 : 아시겠습니다만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은 우리 민중을 식민지노예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소한 이북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한반도전체를 식민지화할 야망밑에 6.25전쟁을 도발했거든요. 그때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단숨에 이룩하기 이해 미육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 대부분과 15개 추종국가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과 이북 민중들앞에는 민족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기느냐 아니면 싸워서 지키느냐 하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됐죠. 세계의 양심인들은 이북의 운명을 놓고 우려를 금치 못했었습니다.

윤정원 : 그러나 6월 25일 아침 주석님께서는 내각비상회의를 소집을 하시고 태연작하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들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셨대잖아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담력으로 전쟁 3년기간에 기술적, 숫적 우세를 자랑하는 미국을 정치적, 전략적 우세로 타승하시고 마침내 6.25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을 하셨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 전쟁

에 막대한 군사비와 7,300여만톤의 군수물자를 들이밀고 화학무기, 세균무기 등 현대과학이 창출할 수 있는 살육무기를 깡그리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했고 이를 분수령으로해서 미국은 서산낙일의 내리막길을 걷게 됐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특출한 민족자주사상과 반제자주정신이 낳은 위대한 업적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그런데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다대한 업적중의 하나는 이북을 인류의 이상촌으로 훌륭히 건설해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진명 : 그렇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광복후 나라의 정세를 천리혜안으로 헤아려보시고 이북 민중이 나아갈 길은 소련식이나 미국식이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길이라는 것, 이북 땅에 세워야 할 정권도 소비에트나 부르조아정권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정권이라는 것, 그리고 이북 민중이 수행해야 할 혁명은 부르조아혁명이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추진시키셨어요. 이 나날에 토지개혁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개혁도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민중의 지향과 요구에 걸맞게 혁명적으로 추진시켰죠.

윤정원 : 그뿐만이 아니예요. 주석님께서는 6.25전쟁후 모든 게 잿더미로 된 폐허위에서 인류이상사회의 청사진을 펼쳐주시고 민중을 분기시켰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당시 미국과 서방언론은 이북의 상황을 놓고 백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그렇게 평을 했잖아요. 하지만 주석님께서는 독창적인 경제건설노선을 제시하시고 그걸 빛나게 영도하셔서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등 여러가지 사회주의적 개혁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남들은 몇백년이 걸려서 수행한 공업화의 역사적 위업이 3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이 됐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독창적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노선을 제시하시고 그걸 현명하게 영도하셔서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립을 하셨어요. 정말 그 나날에 주석님께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니시고 민중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셨는데 알려진데 따르면 그분께서 조국광복직후부터 생애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신 단위수는 2만600여개이고 그 날짜수는 8650여일에 달합니다.

유진명 : 이 나날 주석님께서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노정의 총연장거리는 무려 57만8000여킬로미터(144만5000여리)로써 이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301회나 왕복한 것과 같고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 것과 맞먹는 거리라고 해요.

윤정원 : 정말 감동을 금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경애하는 주석님의 그같이 크나큰 노고가 있었기에 이북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세금없는 사회로, 무료치료, 무료교육이 실시되는 사회로 됐고 ≪자주≫, ≪자립≫, ≪자위로≫라는 민중의 이상향으로 꽃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지구촌에 우뚝 서게 됐던거죠.

사회자 : 옳은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또한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불면불휴의 노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진명 : 사실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항일무장투쟁시기를 제외하면 이북에서 사회주의이상향건설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주석님께서 제일 심려하신 문제가 바로 나라의 통일문제였죠. 아시겠지만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조국광복위업은 한반도절반만을 위한 것이 아니였거든요. 그러기에 그분께서는 광복후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우리 겨레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시며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셨던 겁니다.

윤정원 : 주석님께서는 매시기마다 공명정대한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히 제시하셨는데 특히 조국통일3대헌장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같은 그러한 통일의 위대한 경륜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노고에 노고를 다하셨죠. 주석님께서는 또 조국통일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해주시고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전환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고 또 여러분야에서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생전에 마지막으로 봐주신 문서도 다름아닌 통일관계문서였겠습니까.

유진명 : 정말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시고 모든걸 다바치신 분이시기에 주석님께서는 광폭의 도량으로 나라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겨레 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셨던 거예요. 광복후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을 과거불문의 원칙으로 한품에 안아 통일운동에 나서게 하신 사실이라든가, 그리고 최덕신, 최홍실을 비롯한 과거가 불미한 많은 사람들을 한품에 안으셔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삶을 빛나게 해주신 사실 등은 그걸 잘 입증해준다 하겠습니다.

사회자 : 정말 **김일성**주석님의 광폭의 도량과 대해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조국통일운동의 주체가 튼튼히 자라나 통일운동이 성장됐던 거고 바로 그런 튼튼한 토대가 있어 6.15남북공동선언과 같은 역사적인 사변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석님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윤정원 : 아시다시피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평생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해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셨어요. 그분께서는 수많은 고전적 저작들을 발표하셔서 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반제투쟁전략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략적 방침들을 제시하셨고 비동맹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선과 남남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노선 등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서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들에 명확한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동구권사회주의가 붕괴됐을 때는 ≪평양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셔서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현재 ≪평양선언≫에 서명한 나라 단체는 250여개나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판도에서 사회주의재건운동이 막을 수 없는 추향으로 되고 있다는 걸 실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명 : 그뿐이 아니예요. 주석님께서 세계 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몸소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도 만나주셨거든요.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주석님께서는 생애의 전기간에 136개 나라에 7만여명의 저명한 인사들을 몸소 만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고 구소련을 비롯해서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하시는 나날에는 세계 136개 나라의 국가수반 120여명을 연 1982회, 당수반 206명을 연 2236회, 정부수반 76명을 연 833회에 걸쳐 만나셔 가지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오늘 세계진보적인류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경모하는 건 바로 그분께서 이처럼 세계자주화위업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셨기 때문이였죠. 고금동서에 위인들이 많지만 **김일성**주석님처럼 민족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시며 역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위인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80성상을 되돌아보며 그분께서 민족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쌓으신 영원불멸할 업적, 그 일단을 간추려 얘기 나눠봤는데요.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사례만으로도 우리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잘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5~17일

인류사에 남긴 위대한 유산

20세기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인류자주위업이 승승장구한 위대한 변혁의 세기였다 하겠죠. 인류에게 운명개척의 보검, 주체사상을 안겨주신 주석님의 업적은 인류자주위업과 더불어 만대에 기리 빛날 것입니다.

≪인류사에 남긴 위대한 유산≫ 김현규씨 자리 함께 했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고 보니까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데요. 주석님께서는 인류가 수십세기에 걸쳐 이루어낸 변혁과 진보를 더한 것보다 더 값지고 빛나는 유산을 남기셔서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셨죠. 이건 우리 온 겨레가 받아안은 최대의 영광이고 최상의 행복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인류사에 남기신 위대한 유산인 시대의 향도이념, 주체사상에 대해 얘길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20세기가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한 거창한 변혁의 세기로 찬란히 빛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위대한 주석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가 가져다준 결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류사는 수많은 위인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처럼 그렇듯 당대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신 그런 걸출한 위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주석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건 역사의 전진운동을 추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인데요. 그건 바로 시대의 흐름이 그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사상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주석님께서는 20세기는 자주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적 시대라고 천명하셨는데요. 그건 1920년대 중엽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고 세계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주성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지는 자주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사에 도래한 이같은 자주시대는 그에 걸맞는 지도사상을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적 과제는 오직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를 지닌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신 **김일성**주석님에 의해서 비로소 빛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변혁사상은 시대가 달라지고 변혁실천이 요구한다고 해서 스스로 창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현규 : 그건 오직 시대와 변혁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노동자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될 수 있는 겁니다. 19세기 40년대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계급의 첫 수령이였던 마르크스에 의해 창시됐다면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혁명시기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승리의 가능성을 밝히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이론적 무기를 안겨준 건 당대 노동자계급의 수령이었던 레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선행한 변혁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자주위업의 실천적 요구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셔서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발견하시어 새로운 변혁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사회적 본성에 걸맞게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자신을 철저히 개조하며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참다운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변혁학설인 겁니다.

사회자 : 위대한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과학성으로해서 오늘 세계 진보적 민중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자주시대의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으로 공인되고 있죠.

김현규 : 주체사상은 변혁실천을 통해서 그 활력과 견인력이 과시됨에 따라 세계 진보적 민중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주시대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민중은 오늘 주체사상에서 삶과 투쟁의 길을 찾고 있으며 그를 자기 나라의 변혁실천에 걸맞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사람들속에서 얼마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건 그것이 파급되고 있는 상황을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주체사상의 파급은 개별적 나라들의 지경을 벗어나 지역과 대륙을 넘어 세계적 판도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신봉자들의 대열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주도하에 지역 또는 대륙적 범위에서 국제적 규모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구요, 주체사상의 연구보급과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조직들과 센터들이 세계 곳곳에서 결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4개의 지역연구소 그리고 27개의 전국위원회와 1000여개의 연구조직들과 센터들이 결성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사회자 : 세계적 판도에서 일고 있는 주체사상연구붐은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자주시대의 보편적 의의를 갖는 만인공유의 사상으로써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 걸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주석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셔서 이북 땅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신 건 주체사상의 활력을 산현실로 보여준 생동한 사례라 하겠죠.

김현규 : 착취와 압박이 없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것은 민중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인데요. 그러한 지향과 염원은 위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비로소 이북에서 산현실로 꽃펴났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어 이 북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 창조와 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와 간고한 투쟁에 의해 마련된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오늘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힘과 자심감을 안겨주는 사회주의보루로 거연히 솟아 빛나고 있는 것이죠.

사회자 : 지난날 착취와 압박, 낙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북 땅위에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가 우뚝 솟은 것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인류자주위업에 남기신 가장 빛나는 업적이고 우리 민족이 긍지높이 자랑하는거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의 광범위한 민중이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 평등을 위해서 결연히 일어나 싸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20세기의 공산당선언≫으로 불리우고 있는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재건운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모든 진보적 운동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강위력한 역량으로 끊임없이 성장강화되고 있는 것도 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비범한 사상이론적 활동으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주석님께서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사에 남기신 이 고귀한 유산과 불멸의 업적으로해서 오늘 인류는 그분을 동서고금에 일찍이 없었던 만고절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고 **김일성**주석님을 20세기를 빛내이신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격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까지도 주석님을 만나뵈옵고 ≪그분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이 3대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격찬했는데요, 그의 이 말속에는 사상으로 위대하시고 영도와 업적으로 위대하시고 또 덕망에서 으뜸이신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심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 위대한 주석님께서 인류사에 남기신 위대한 유산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 사상과 영도, 덕망에서 주석님 그대로이신 사상이론의 대가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더욱 발전풍부화되고 있는데요. 세계 진보적 인류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자주의 길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건 전적으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셔서 시대가 낳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셨기 때문이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 해답을 주는 새롭고 독창적인 이론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최근 수년간만 해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들을 발표하시어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중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해서 위대한 주석님께서 인류사에 남기신 고귀한 유산인 주체사상은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차게 추진시키는 향도이념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셔서 자주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인류사에 남기신 가장 값지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정녕 사상이론의 거장이신 주석님과 같으신 만고절세의 위인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건 온 겨레의 끝없는 영광이고 행운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안고 주체의 기치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이 땅위에 하루빨리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안아와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5~17일

≪태양회≫ 태양절 기념 결의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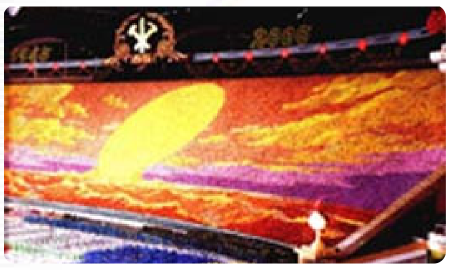
서울에서 활동하는 ≪태양회≫회원들이 15일 아침 남산 팔각정 분수대 앞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절을 기념하는 결의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식이 시작되는 시각, 회원들은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이어 모임에서 발언한 회장은 ≪우리 민족은 만고절세의 영웅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다. 우리 민족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그분을 천세만세 따르는 건 ≪태양회≫회원들 뿐 아니라 온 겨레의 신성한 의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셔 민족통일대행진은 거대한 대하가 되어 도도히 굽이쳐 흐르고 있다면서 회원들 모두가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방략을 실현하는 길에서 선봉투사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토론한 여러명의 회원들도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의 영수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고야 말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 주체91, 4월 17일



김정일동지는 21세기의 태양

평양에서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의 토론회 진행

1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의 토론회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디 브룩스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시대를 대표하는 위인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력사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신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해방투쟁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나라를 광복하신후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실현하신 비상히 풍부한 경험과 정치경력,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정치가이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문제,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는 문제,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건전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문제 등 자주화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혀 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함께 20세기를 빛내이고 이끌어 오신 탁월한 정치가, 비범한 령도자이시며 21세기의 태양이시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여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정치, 군사적대결에서 승리하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고수하신것은 그이의 특출한 공적으로서 인류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의 축하연설과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 총비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몰도바공화국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여러 나라 당대표들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9차회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9차회의가 16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조선사회과학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2001년 사업총화보고에서 지난해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토의채택한 사업계획과 특별결의를 원만히 집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세계대회준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신봉자들이 뜻 깊은 올해에 주체사상선전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 세계의 평화와 진보,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2002년도 사업계획을 토의하였다.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모하메드 디우에 포파나가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몽 쥬브가 자주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결의를 랑독하였다.

결의에는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끊임없이 연구체득하고 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며 **김정일**총비서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보급하며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려 나갈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또한 반제자주력량과의 지지와 련대성을 부단히 강화하며 ≪세계화≫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2003년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25돐을 뜻 깊게 맞이할것이라고 결의에는 지적되여 있다.

이어 결의에 대한 지지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주체사상세계대회조직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16일 저녁 평양시내 여러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태양찬가, 위인송가를 힘차게 불렀으며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주, 평화에 대한 지향이 담겨 지고 민족적색채가 짙은 예술종목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축전무대를 다채롭게 장식하였다.

교예배우들은 국제, 국내교예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들, 인간의 높은 창조력과 뛰여난 재능을 보여 주는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축전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 강능수문화상, 문일봉재정상, 리원일로동상,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과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김정일의 오로라는 강렬했다

러시아 고위 관료 풀리코프스키, ≪김정일과 함께한 24일≫ 책으로 펴내

조만간 베일에 싸였던 **김정일**국방위원장 주변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세간에 알려질 예정이다. 지난 3월26일 러시아 신문 ≪블라디보스토크≫는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극동지구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사가 집필한 ≪**김정일** 러시아 방문기≫ 제1부를 출판했다.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는 이미 출판된 제1부와 계획된 제2부를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제1부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풀리코프스키의 회상이고, 제2부는 **김정일**위원장과 풀리코프스키가 지난 러시아 방문 중에 나누었던 담화와 흥미로운 주변 일화이다.

풀리코프스키(54)는 지난해 여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공식 방문 길에 올랐던 **김정일**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인물이다. 그는 김위원장을 북・러 경계 지점인 하산에서 영접해서 하바로프스크와 모스크바를 경유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장장 1만2천8백km를 24일간 수행했다. 군사 아카데미 출신으로 체첸 지역에서 근무하다 중장으로 예편했고 2000년 5월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사로 임명된 그는 현재 러시아 최고의 ≪**김정일** 전문가≫로 통한다.

풀리코프스키는 **김정일**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때 있었던 미공개 일화와 **김정일**위원장의 정치철학・세계관, 그리고 사생활 일부도 공개했다. 또한 김위원장이 직접 보고 느낀 러시아 현실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수록할 예정이다. 김위원장 방문을 계기로 풀리코프스키는 **김정일**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는 **김정일**위원장과 24일 내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상적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현안까지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풀리코프스키는 ≪나는 후에 속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이건 매우 흥미롭고도 의미 심장한 자료라고 느꼈고, 그때 **김정일**위원장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사회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실감했다≫라고 집필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10일 **김정일**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북을 방문했다 귀국한 직후 출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책 속에서 풀리코프스키는 김위원장의 인물됨이 신비스럽다고 묘사했다. 그는 ≪김위원장과 대화한 후 나는 녹초가 되어 객실에 돌아오곤 했는데, 이는 그가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강렬한 오로라(極光)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고 적었다.

김정일위원장과 측근들 간의 관계도 세심하게 관찰했다. **김정일**위원장의 객실로 초대받은 이북 고위급 인사들은 매우 엄격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다고 한다. ≪그들은 들어서자마자 코가 땅에 닿도록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김위원장이 보일까 말까 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장승처럼 꼿꼿이 선 자세를 취했다≫고 풀리코프스키는 기술했다.

보도되었던 것과 달리 **김정일**위원장이 이용했던 특별 열차는 일본에서 제작된 특수장갑 열차가 아니라 내부만 일부 개조한 평범한 열차였다고 풀리코프스키는 밝혔다. 과거 스탈린 소련 서기장이 **김일성** 전 이북 주석에게 선물했던 기차인데, 단지 김위원장이 탄 차량만 특별히 일본에서 내장을 꾸몄고, 창문과 출입문 주위 일부만 방탄 처리했을 뿐이라고 그는 전했다.

한편 풀리코프스키는 ≪차량 간의 문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어 **김정일**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는 짧은 정차 시간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때의 간단한 운동이 식욕을 돋우는 데 제격이었다≫고 유머를 곁들이기도 했다.

풀리코프스키는 24일간 **김정일**위원장을 ≪취재≫한 결과를 책으로 펴냈다.

김위원장이 사용했던 응접실 차량의 내부 장식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묘사도 흥미롭다. 김위원장은 응접실용과 휴식용 차량을 별도로 사용했다. ≪우리가 만났던 응접실 차량은 하얀색의 우아한 플라스틱 내장제로 장식된 널찍한 살롱과 유사했다. 최고급 양탄자가 깔린 바닥과 대형 거울로 장식된 벽면, 그리고 크림색의 안락한 소파 등 가구들이 꾸밈새 있게 갖추어져 있었다. 노래방 기기와 같은 가전제품들이 적재적소에 구비되어 있었고, 위성 인터넷이 장착된 컴퓨터는 **김정일**위원장의 애용물이었다. **김정일**위원장은 광적으로 인터넷에 열중했다≫고 저자는 썼다.

응접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2개 설치되어 있었다. 하나는 영화 감상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성과 연결된 정보 안내 스크린이었다. 김위원장이 영화에 조예가 깊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풀리코프스키를 놀라게 한 것은 정보 안내 스크린이었다. 스크린에는 특별 열차의 정확한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전자 지도는 물론 주지사・주의원 등 유명 인사에 대한 상세한 개인 정보까지 표시되었다.

김위원장의 귀로는 한결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러시아와 중국간 경계를 이루는, 석양이 아름답다는 아무르 강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주변 경관을 즐겼다. 또한 ≪아끄바리움(수족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이 지역 주지사가 대접한 맛난 해물 요리도 맛보았다. 하바로프스크에서는 시내를 관광하면서 박물관을 방문했고, 백화점에 들려 점원들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풀리코프스키는 자신의 관저로 김위원장을 초대해 차를 대접했고 담소를 나누었다. 관저에서 김위원장은 대통령 전권대사와 크렘린을 직접 연결하는 직통 전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여행 기간에 절친해진 김위원장과 풀리코프스키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마약 문제와 같은 러시아의 심각한 사회 문제도 화제로 삼았던 듯하다.

풀리코프스키는 책에서 김위원장의 신변 안전 특별 조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위원장은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특별 경호원 25명을 대동했고, 러시아 연방안전국과 지역 경찰들이 공조해 보안과 경비를 맡았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위원장의 하차가 예정된 역사 주변에 저격수 50명을 파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정다원통신원
시사저널 제651호 2002/4/18

미국무성부장관 ≪미싸일 수출 무력 제지≫발언 비난

≪민주조선≫, 미국무성부장관 아미타지의 도발적 망언과 관련해 론평

≪민주조선≫ 17일부는 미국무성의 부장관 아미타지가 한 기자회견이라는데서 미싸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실은 북조선선박이 공해상에서 발견되는 경우 무기의 ≪압수와 선박격침도 미국이 취할수 있는 선택≫으로 된다고 도발적인 망언을 한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아미타지의 망언은 부쉬행정부의 북침핵공격계획과 결코 무관계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이 우리를 테로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대량살륙무기위협≫설을 류포시키고 있는것은 우리에 의한 ≪테로공격가능성≫을 여론화하여 핵공격을 비롯한 저들의 범죄적인 무력공격시도를 정당화하고 힘으로 조선반도를 지배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해 보려는 더러운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 검은 속심의 발로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이번에 아미타지가 북조선의 ≪미싸일수출≫을 무력으로 제지하겠다고 고아 댄것도 우리 공화국의 ≪핵, 미싸일위협≫의 ≪심각성≫을 세계에 납득시켜 저들의 범죄적인 대북조선핵선제타격, 무력침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허황한 여론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털어 버리지 않고 여전히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에 응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구태여 피할 생각도 없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사소한 침해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는것을 미국에 다시한번 명백히 해두는 바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4.19민중봉기 42주년

4.19민중봉기 41주년이 되는 것에 관련해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2001.4.18)

오늘 우리 민중은 반미반독재 구국운동사에 귀중한 첫 승리를 기록한 4.19봉기 41주년을 맞고 있다.

4.19봉기는 식민지 이 땅에서 불의와 독재를 용납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투철한 항거정신과 자주, 민주, 통일에 살려는 결연한 의지의 분출이었다.

4.19의 그날, 우리의 미더운 청년학생들과 민중이 항쟁의 거리에서 피타게 절규한 것은 이 땅에 예속이 없고, 독재가 없고, 분열이 없는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이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의로운 항쟁용사들은 피어린 결사전을 벌여 마침내 이승만 독재를 꺼꾸러뜨렸다.

그러나 4.19봉기로 이 땅에 밝아오던 민주의 여명과 조국통일의 서광은 미제의 배후조종에 의한 5.16군사 **속에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미제야말로 우리 민중이 피로써 쟁취한 4.19 열매를 무참히 짓밟은 침략과 압제의 괴수이며 역사적으로 이 땅을 50여년 간이나 식민지로 강점하고 우리 겨레에게 온갖 재난과 불행만을 강요한 철천지원수이다.

최근에만도 미제는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켜 6.15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걸며 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과 한반도정세는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 있다.

4.19 민중봉기

우리 민중은 오늘의 이 엄혹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

반미투쟁은 곧 민주를 위한 투쟁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애국이 있다.

우리 민중의 귓전에는 아직도 4.19용사들이 항쟁의 거리에서 외치던 민주, 통일의 함성이 그대로 들려 오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각계민중은 4.19항쟁용사들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7천만 온 겨레가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의 그 날을 하루 빨리 성취하기 위해 거족적인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당면하여 미제의 침략적인 반북반통일공세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총 화력을 집중하고 경향각지 전역에서 거족적인 반미항전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수고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분열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 국민과 함께 4.19항전용사들의 의지를 되살려 거족적인 투쟁으로 미제의 범죄적인 한반도 정책을 단호히 저지, 분쇄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는 획기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다.

4.19염원 기어이 실현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민중은 민족민주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4.19민중봉기 4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각계층 민중들은 자유와 민주, 통일을 외치며 불퇴전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한 4.19항쟁용사들의 투쟁모습을 그려보며 그들이 못다 이룬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41년전 열혈청년학도들과 각계층 애국 민중의 새 정치, 새 사회, 새 생활을 위하여 분기하였던 4.19민중봉기는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식민지 통치와 이승만 역도의 영구집권음모와 파쇼통치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4.19민중항쟁은 1960년 3월 유례 없는 사기와 협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이승만 역도의 대통령당선과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마산시민의 투쟁으로부터 시발되었으며 삽시에 서울과 부산, 인천, 전주, 대전 등 경향각지에로 확산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들에서 투쟁에 분기한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썩은 정치 물러가라!≫, ≪이승만정권 타도하자!≫ ≪미국은 데모에 간섭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난 노도와 같이 항쟁의 거리에 달려나와 적수공권으로 파쇼의 아성을 짓부수며 과감히 싸웠습니다.

전국 80여개를 지역을 휩쓴 4.19민중항쟁에 의해 파쇼통치체제는 마비되었으며 수백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피어린 영웅적 투쟁을 통해 이승만독재정권을 타도함으로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친미주구 이승만 파쇼독재정권을 타도한 4.19민중봉기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애국민중들이 참가한 반미, 반독재투쟁에서 귀중한 첫 승리를 기록한 의로운 항전이었고 각계층 민중이 하나로 굳게 뭉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다면 그 어떤 포악한 독재자도 얼마든지 타도할 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4.19민중봉기는 미국의 간악한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영웅적 장거였고 정의와 진리에 투철하고 애국에 과감한 열혈청년학도들과 각계층 민중의 힘찬 진군은 총칼로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습니다.

4.19항쟁의 나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들이 피나게 절규한 것은 이 땅의 예속이 없고, 독재가 없고, 분단이 없는, 새 정치, 새 사회, 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4.19민중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흘리며 싸운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이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던 숭고한 뜻, 그 염원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4.19이후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 미국의 식민지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교활한 신식민지주의적인 예속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악랄한 파쇼독재정치와 식민지 예속정권을 **해왔습니다.

우리민중의 피로써 쟁취한 열매를 강탈한 미국은 지금도 우리민족 겨레의 흉적으로 남아있으면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장본인으로써 여전히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지향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나게 절규한 4.19항쟁용사들의 외침이 꿈으로만 남아있는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식민지 통치와 친미사대 매국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들의 염원은 물론 우리민중의 어떠한 요구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벌여온 우리민중이 오늘의 이 현실을 한시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새 천년, 새 세기가 시작된 오늘까지도 4.19민중봉기자들이 절규했던 새 정치, 새 사회, 새 생활은 의연히 역사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 시기 우리 민중 앞에 나서고 있는 과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종식시키고 빼앗긴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며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반세기이상 이 땅에서 식민지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민주 민권과 생존권을 유린 말살하고 있는 최대의 흉적이고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 장애물이며 암적 존재입니다.

우리민중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과감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빼앗긴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민중은 또한 미국과 결탁한 친미사대 매국세력과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41년전 피흘리며 쓰러진 4.19항쟁용사들은 그 날의 그 정신, 그 뜻을 이어 싸우고 있는 우리민중을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런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각계민중은 외세에 의해 반세기 이상이나 강요되고 있는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고 좌시할 수도 없는 오늘의 현실적 요청에 부흥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감으로써 4.19항쟁용사들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주체 90, 4월 18~19일

남북연석회의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예비회의에서 한 연설 - 1948년 4월 19일

여러분!

나는 먼저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내외반동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평양에 온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남북연석회의에 상정할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사변이며 매우 기쁜 일입니다. 오늘 예비회의의 성과는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의 성공을 확고히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비회의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전체 조선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최되는 남북연석회의가 빛나는 결실을 맺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이승만 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나라에 조성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자면 남북의 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구국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구국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이 우리의 협상제의를 지지하여 나섬으로써 드디어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회의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서 토의 결정할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으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다면 오늘 오후 6시부터 남북연석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김구, 김규식 선생들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이미 남북연석회의 소집에 찬의를 표시하고 이 회의에 참석할 결심을 표명한 것만큼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연석회의를 시작하는데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연석회의에서 미제와 그 주구 이승만 도당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주적인 구국대책을 공동으로 세워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나아가서 북조선과 아시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민주주의와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애국적인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립할 것을 예견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집행을 전면반대하고 소미공동위원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으며 38도선을 국경처럼 만들어 놓고 남조선에서 파쑈적인 군사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소미 양국군대를 동시에 철거시키고 조선인민 자신의 손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 가 저들의 거수 기를 발동하여 소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부당한 결정을 채택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 나라에 완전한 통일독립국가를 건립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는 것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독립을 바라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연석회의에서 소미 양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의 손에 맡길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견결히 주장하며 이 문제를 소미 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강력히 제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연석회의에서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조선문제를 해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허수아비기구로서 다만 미제의 조선침략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외에 폭로하여야 하며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단독선거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이번 남북연석회의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괴뢰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단독선거를 실시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연석회의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조작음모를 반대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남북조선 인민들이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연석회의에서는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원칙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 최고입법기관을 구성하고 나라의 융성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심중히 토론하고 연석회의에서 민주주의적 통일정부수립을 추진할 수 있는 고견들을 제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따라서 조선문제는 어디까지나 단결된 조선인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입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였을 때에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쉬임없이 전개하여 왔으나 애국역량의 단결을 도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옳게 이용하지 못한 것도 민주역량이 단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때 남조선에서 민주역량을 굳게 단결시켰더라면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분열될 위기에까지는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남북조선 각계각층 애국역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은 것도 결국 전 민족을 굳게 단결시켜 옳은 구국대책을 세우고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사람은 단결력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민족이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단결력이 강하고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이것은 해방 후 2년 남짓한 기간에 북조선에서 달성한 민주건설의 성과가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해방 후 북조선인민들은 민주주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자기 손으로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온 대표 여러분들은 그 동안 북조선의 각지를 참관하면서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조선민족이 자치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민을 예속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목적에서 나온 궤변에 불과합니다.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모든 애국역량을 굳게 단결시켜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열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합니다. 남북조선의 각 당, 각파, 각계 인사들이 자기의 사상과 주의주장만 내세우고 고집한다면 단결할 수 없으며 결국 남조선인민들을 망국노의 운명에서 건져낼 수 없고 민족지상의 과업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각계각층 애국역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그 어떤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이건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통일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에서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이 단결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견해일치를 봄으로써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남북연석회의의 개회선언과 관련하여 한가지 의견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의의 깊은 회합인 것만큼 연석회의의 개회선언은 일제의 조선강점 초기부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장기간 굴함없이 싸웠으며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들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김월송 선생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비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자기 대표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대표들이 남북연석회의에서 일치한 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6. 구국군과 함께

나는 류하에 머무를 때 리홍과, 리동광의 련계를 위하여 반석지방에 련락원을 파견하였다. 우리가 남만원정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던 그때 그 두사람도 유격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이 9.18사변후 보민회를 비롯한 친일단체의 주구배들과 싸우기 위해 조직했던 무장적위대(일명 타구대, 개잡이대라는 뜻)는 1932년9월에 이르러 반석로농의용군으로 성립되었다. 이 의용군은 모두 탈량투쟁과 주구숙청, 무기탈취, 반일봉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조선청년들로 구성되어있었다. 1932년 여름부터 리흥광, 리동광은 항일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었다.

그들은 주구숙청투쟁에서 특출한 수완을 발휘하여 많은 화제거리를 남기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려고 한 것은 남만지방의 주인들이기때문에 단순히 의례방문이나 하고 인사나 나누자는 것은 아니였다. 중요한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자는데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들과 투쟁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다음으로 내가 관심을 둔 것은 그들이 조선혁명의 전도를 두고 어떤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당면과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립장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두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만주각지에서 분산적으로 무장투쟁을 개시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역상호간의 련계는 어떻게 보장하고 린접과의 보조는 어떻게 맞추며 활동에서의 협조, 협력, 협동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였다. 나는 북만의 김책, 최용건, 리학만, 리기동, 허형식과도 그런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남만과 북만은 우리의 린접이자 인측이라고 할 수 있었다. 린접과의 협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무장투쟁의 전반적 발전에 심대한 작용을 하는 중요한 고리이고 공간이다.

반석에 갔던 련락원은 우리가 해룡을 떠나 몽강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야 부대로 돌아와 리흥광과 리동광이 지방공작을 나가고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곳 지하조직에 나의 편지만 남기였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나는 리흥광, 리동광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몽강에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벌이었다. 몽강에서 우리가 세운 활동의 총적목표는 무장을 해결하는 것과 대렬을 확대하는 것이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치공작과 함께 군사외교활동이 필요하였다.

몽강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서 몇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몽강의 관리들가운데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나의 동창생들이 많았다. 계렬을 따지면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어떤 정치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분고분 공부만 해오던 샌님같은 사람들이였는데 그들이 몽강의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당현공서에서 일하고 있다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자위군이라는 데 들어가서 큼직한 벼슬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다.

몽강에는 통화지방에 본부를 두고 있은 당취오자위군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동창생들을 내세워 그 대표와 교섭을 잘하면 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우리는 몽강에 눌러앉아 자위군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그때 부대의 지휘관들은 자위군과의 사업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자위군과 접촉하는 것을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태반이였다. 같은 조선사람인 량세봉과도 뜻이 맞지않아 담판이 결렬되었는데 자위군과 사업하여 무기를 얻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항차 자위군은 지금 와해상태에 있지 않은가, 어떤 부대에는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할 모의를 한다는데 그런 함정에 대장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나는 자위군내부에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있는 것은 크게 걱정한지 않아도 된다. 그놈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판별하는 촉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의 눈을 속이고 자위군지휘부에 뚫고들어가 그 상층을 설복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 자위군이 와해상태에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작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있는 유린한 조건으로 될 수있다. 그들은 왜놈들이나 토비들에게 총을 넘겨주거나 내버리는 것보다 항일을 하는 우리에게 양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처럼 완고한 우사령과도 뜻이 통하여 합작을 성사시켰는데 자위군이라고 해서 왜 굽혀내지 못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러자 지휘관들은 대장동무가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한 것은 천번중 한번이나 있을가 말가 한 우연이다. 만일 그 부대에 류본초선생이 없었더라면 담판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위군부대에 찾아가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해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콩이야 팥이야 하며 시야비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기질이 아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우리가 류본초선생의 덕을 크게 본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공을 순전한 우연으로만 보는 것은 비과학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구국군과의 관계를 풀려고 주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류본초선생도 우리를 도와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배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동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루루이 지휘관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련락병을 한명 데리고 자위군의 지휘부로 찾아갔다.

자위군의 병영에는 사병들이 꽉차있었고 정문으로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마가 그칠새없이 드나들었다.

정문에서 보초병이 우리를 멈춰세우고 산동지방말씨로 ≪무슨 사람들인가?≫하고 물었다. 보초의 검실검실한 눈이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자위군과는 판판 다른 우리의 유격대복장과 모자의 오각별을 유심히 더듬고 있었다.

나는 그 산동사람의 말씨를 약간 본따서 중국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안도에서 온 구국군별동대요. 나는 별동대 대장 **김일성**이요. 당신네 사령을 만나러 왔으니 안내해 주오.≫

≪**김일성**? **김일성**별동대면 공산당이 아닌가?≫

얼굴에 마마자국이 뚜렷한 두번째 보초가 입속으로 내 이름을 중얼중얼 외우며 미심쩍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김일성**부대가 공산당부대라는 말을 어디서 얻어듣고 기억에 새겨두었던 모양이였다.

≪우리는 우사령의 별동대다. 당신 우사령도 모르는가?≫

내가 위엄을 풍기며 이렇게 따지자 마마자욱이 있는 보초는 ≪아, 우사령! 그사람 알고 있소, 그 사람부대 남호두에서 왜놈의 기관총 로획했소, 우사령 대단한 사람이지.≫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였다.

결국은 우사령별동대라는 명함장이 은을 낸셈이었다. 중국인반일부대들이 있는 데서는 이 명함장이 맥을 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군을 할 때에도 반일부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늘 구국군 조선인별동대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였다.

잠시후 산동말을 하던 첫번째 보초가 병영에 들어가서 풍채좋은 사나이를 데라고 나왔다. 그때 당시의 구국군들이란 대체로 옛 장학량군시절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런데 방금 보촉를 따라 정문에 나타난 장교는 이상하게도 반소매에 가랭이가 무릎에도 채 닿지 않는 짧은 바지를 입고 발에는 포화를 신었다. 머리카락도 기름을 발라 윤기가 나고 있었다.

≪아, 이거 김성주주임이 아닌가?≫

그것은 이름대신 ≪장꺽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던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 장가였다. 그가 나를 주임이라고 한 것은 내가 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맡아보았던 도서주임직을 념두에 둔 것이였다. 장가는 학생시절에도 나를 늘 ≪김주임≫이나 ≪성주주임≫이라고 불러주며 호의적으로 대해왔었다. 우리는 반갑게 손을 마주잡고 한참동안 학창시절의 회포를 나누었다. 해수로 계산하면 그와의 상봉은 3년만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나는 감옥을 나온 다음 학우들에게 작별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총총히 길림을 떠난 것을 후회하였다. 혁명을 위해 사사로운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킨다는 정신을 가지고 동분서주하던 때여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 같기도 하였지만 스승들과 학우들에게 인사를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 도덕적인 빚이 마음속에 연덩어리처럼 무겁게 매달려 나를 괴롭힐 때도 없지 않았다.

장가를 만나고보니 이미 지평선너머로 사라져버린듯한 육문중학교시절의 가지가지 정경들과 그 시절에 맛보던 랑만적인 학생기분이 되살아올랐다. 나는 군화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는 병영마당이 아니라 정향꽃향기가 진동하는 육문중학교 정원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장가의 손을 잡고 그대로 병영문을 나서면 북산에도 가닿고 송화강바람도 쏘일수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가슴을 짜릿하게 하는 이상야릇한 향수였다.

장가는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내 팔을 허물없이 잡아끼고 이따금씩 큰소리로 웃어대면서 나를 자기 방으로 안내하였다.

≪우리 학교 졸업사진에 김주임의 얼굴이 없는건 정말 유감이야.≫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이런 말부터 꺼냈다.

≪우린 졸업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냥 김주임의 이름을 외웠댔어, 김주임이 학교를 중도반단하지 않았더라면 1등생이 되어 상을 탔을거라구. 혁명이라는게 중학공부를 단념할 정도로 그렇게도 성주를 유혹하던가?≫

나는 웃으면서 유쾌한 롱질로 그 말을 받아넘기었다.

≪암, 물론이지. 너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싸창을 차구 자위군의 장교가 된게 아니겠어.≫

장가는 그 말을 듣자 눈을 슴뻑거리며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건 그래, 9.18전만 해두 우린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 속물들이였지. 그런데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잠에서 깨여났거든.≫

≪그것보라구. 그러게 내가 뭐랬나. 사람은 정치밖에서 살 수 없다구 하지 않던가.≫

≪그땐 그말을 귀등으로만 들었댔단말이야. 아, 시국이 왜 이리도 급전직하로 변해가는지 모르겠다. 이 만주땅이란 미친 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자나간 뒤처럼 살풍경이란 말이야.≫

나는 장가가 시국을 옳게 평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만주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고 있는 력사의 흐름은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놀라운 변화들로 가득차있었다. 그 변화는 사람들의 운명에도 무자비한 곡절을 집어놓았다. 장가자신도 며칠전까지는 베이징 대학에 가서 력사학공부를 해볼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였다. 일본군이 만주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자 그는 력사학을 전공하려던 학창시절의 꿈을 버리고 분연히 자위군에 입

→

대하였다. 선비중에 선비라는 평판을 들으며 두보의 시행들에 흐르고 있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정서를 친절하게 풀이해주던 류본초선생이 구국군의 참모장이 도여 조연속을 헤치게 되리라고야 누가 상상인들 했겠는가.

≪이것보라구 김주임, 9.18덕분에 나도 군복을 입은 호걸남아가 되었어.≫

장가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군복을 입은 거야 너뿐인가. 나도 군인이 되어 몽강에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동창 대 동창으로 뿐 아니라 군인 대 군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마주앉아 대세까지 론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들어진 연분인가.≫

그는 이게 다 일본놈들의 ≪덕≫이라고 하면서 그놈들의 ≪덕≫에 사람들이 좀 총명해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알고보니 몽강의 자위군부대에는 장가외에도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이 여러명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치와는 담을 쌓고 립신양명의 길만을 꿈꾸어오던 그들이 목에 피대를 세워가지고 일본을 규탄하고 장개석을 중화민족이 낳은 최대의 기형아라고 조소하는 것을 볼때 만족감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사이의 공동행동문제도 협의하였다. 자위군의 지도부에 있는 동창생들은 우리 부대와의 합작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어렵지 않게 자위군부대내부에 침투할 수 있었으며 몽강에 와있는 자위군총사령부의 대표와도 만날수 있게 되었다.

어느날 나는 장가의 요청을 받고 자위군지휘성원들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 장소에는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갑시다!≫하는 힘찬 호소로 연설의 첫마디로 떼였다.

≪자위군과 반일인민유격대는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반일인민유격대에 공산군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적대시하는 것은 항일을 반대하는 일본을 돕는 길이다.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은 조선인독립군부대를 도와주고 련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조중인민을 리간시키고 그 갈등을 리용하여 량쪽을 다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통치하려는 일제의 교활무쌍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자위군은 대도회, 흥창회를 비롯한 민간무장력과 토비들을 설복하여 그들이 무고한 조중인민들을 살해하고 략탈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대소민간무장대들은 모두 항일 구국력량으로 단합되어야 한다. 일부 반일부대들 중에는 일본군의 위세에 겁을 먹고 중국관내로 들어가거나 투항하는 폐단들이 있다. 투항과 중도반단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때의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이었다.

자위군지휘관들은 그 연설에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런 연설이 있은 후 총사령부대표는 우리에게 수십자루의 무기를 넘겨주었다.

우리는 몽강에서 한 뒤달동안 자위군의 보호를 받으며 군중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하고 훈련도 하였으며 끌끌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선전사업도 확대하는 사업도 하였다. 안도를 떠날 때 40명에 지나지 않았던 대오가 몽강에 와서는 150명 정도로 불어났다. 김성주가 큰 부대를 무어가지고 진출한다는 소문을 듣고 몽강과 그 주변의 청년들이 연방 우리를 찾아와 입대를 청원하였다. 우리는 몽강에서 마치 주권을 잡은 것처럼 자유롭게 활약하였다.

안도에 련락원을 보내여 알아본데 의하면 동만의 형편도 대단히 좋았다. 우리는 그 련락원이 가져온 그동안 많이 불어났다는 것과 왕청, 연길, 훈춘에서도 각각 100명이상규모의 유격대들이 꾸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유격투쟁이 맹아적인 단계에서 본격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기 시작한 동만의 한복판(왕청)으로 우리의 활동무대로 옮기고 거기서 다른 현의 부대들과 힘을 합쳐 얻은 무장투쟁을 좀더 통이 크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원정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바로 유격대의 력량이 미약한 현단계에서는 일정한 활동거점을 차지하고 투쟁하는 것이 유리하고 능률적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몽강에서 무송을 거치지 않고 직발 안도로 갈수 있도록 행군로정을 잡았다. 부대는 로상에서 비적들과 반일부대패잔병을 여러번 만났다. 그들은 우리의 신식총이 탐나서 완력으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여러번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때에 참의부계통의 좋은 로인이 옛말에 나오는 무슨 도사처럼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나 산을 꿰지르면서 부대를 량강구까지 무사히 안내해주었다. 그때 산을 타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단련이 되었고 앞으로 유격투쟁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로도 되었다.

우리가 량강구를 떠나려고 할 때 우사령의 휘하에 있는 한개 련대의 주력이 량강구에 왔다. 그 련대를 맹탄장부대라고 불렀다. 맹탄장의 비서로 있던 진한장도 부대와 함께 량강구로 따라왔다.

진한장은 나를 보자 멀리서부터 두팔을 벌이고 환성을 지르며 껑충껑충 뛰어왔다.

≪성주, 이게 얼마만인가!≫

그는 마치 몇십년동안 헤어졌다 다시 만난듯이 나를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안도에서 우사령과 담판한 후 헤어지고는 한번도 상종하지 못했던 진한장이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석달만에 이루어지는 상봉이었다. 그런데 진한장은 그 석달을 삼년이나 삼십년으로 착각한 사람처럼 우정에 끓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역시 오랜 리별끝에 기적적으로 맛보는 상봉과 같이 느껴져 반가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사람의 생애에서 석달이란 하나의 작은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석달사이에 퍼그나 긴 인생이 흘러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활에 곡절이 많고 체험이 많으면 세월도 길어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리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주네 부대가 어데 있는지 몰라서 여러곳에 수소문했더랬소. 남만에 갔다가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행방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량강구에서 조선공산군이 독립군과 통합을 시작했다는 소문을 우리 부대에까지 날아오지 않았겠소.≫

진한장은 맹탄장에게 나를 소개하고나서 이런 말을 꺼냈다.

≪고맙소. 진동무. 나도 진동무가 보고싶었소. 그런데 량강구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소?≫

≪래년봄까지 이 지방에서 활동하라는 왕덕림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소? 량강구에서 얼마동안 우리와 함께 활동하지 않겠소?≫

곁에서 진한장의 말을 듣고 있던 맹탄장도 같은 제의를 하였다. 나는 맹탄장부대와 함께 있으면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을 더 공고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사람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였다.

맹탄장부대는 장학량의 정규군으로 있다가 반변해서 나온 부대이므로 무기와 장비가 현대적이였다. 그 부대에는 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었다. 총 몇자루에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다를 구국군에 비길수 없을 정도로 이 부대는 전투력이 아주 강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량강구에 머무르는 동안 맹탄장부대는 우리를 잘 호위해주었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 조직되었던 대부분의 반일부대들은 일본군의 강력한 공세앞에서 와해되거나 투항하여 그들의 지휘하에 움직이고 있었다. 구국군가운데서 그래도 투항하지 않고 큰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은 왕덕림부대였다. 그러나 그 부대마저 일본군의 포화가 미치지 않는 만주의 동쪽변두리 동녕과 쏘련경내로 퇴각하고 있었다. 반일부대들의 무력한 붕괴과정은 우리의 군사정치간부들속에서 그들에 대한 불신임을 낳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중국인반일부대의 동요와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반일부대와의 뉴대를 끊어버리고 반일인민유격대가 단독으로 싸워나가자고 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허용해서는 안될 위험한 사고방식이었다.

반일련합전선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수만명에 달하는 막대한 무장력을 적들의 편에 밀어던지는 것으로 되며 반일부대들을 각개격파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술적 의도에 발맞추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반일부대들의 동요성과 불철저성은 그들을 지도하는 상층의 계급적 제한성에 근원이 있었지만 주로는 적들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오는 것이었다. 반일부대의 동요와 괴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동시에 전투를 통하여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현실적 절박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량강구에서 진한장, 리광, 호진민 등 구국군부대들이 참가하는 반일병사위원회를 두차례에 걸쳐 열고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반일부대들의 동향이 분석총화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절대다수의 반일부대들이 항전을 포기하고 안전지대로 철수해가거나 적들에게 투항하여 반동군대로 변질된 조건하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점령지대를 확대해가고 있는 일본군에 타격을 주고 애국적 군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우리 부대와 오의성부대, 맹탄장부대와의 련합으로 돈화현성과 액목현성을 습격하는 전투를 벌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맹탄장도 우리의 전투계획을 환영하였다.

2000여명에 달하는 구국군부대는 세개조로 나뉘여 길돈선방향과 연길방향, 돈화방향으로 각각 진출하였으며 우리부대는 맹탄장의 부대와 함께 푸르허 동쪽과 대포시하 동쪽 산길을 따라 돈화남방 대황구부근 수림속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돈화현성에 정찰조를 파견하여 고재림이 보내온 적정자료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 당시 돈화현성에는 일본군부대가 주둔해있었고 위만군길림경비 제3려단본부와 4련대, 9련대 비행장경비대와 일본령사관 경찰과 위만경찰을 비롯한 막대한 무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적들은 매 성문포대와 령사관 분관정문에 물샐틈없는 경비진을 치고 있었다.

9월 2일 새벽3시 아군부대들은 일제히 돈화현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리 부대의 공격방향은 남문이었고 호진민이 인솔하는 구국군부대는 서문과 북문을 거쳐 현성으로 돌입하였다.

성안에 재빨리 돌입한 아군은 적들의 지휘처를 습격한 다음 적려단지휘부와 령사관분관, 경찰분서를 일거에 소탕하고 적려단구분대병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다. 전투의 주도권은 아군의 손에 튼튼히 쥐여져있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2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아군에게 기총소사와 폭탄을 마구 퍼부었다.

구국군대원들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런 상태로 날이 밝는다면 전투상황이 역전되고 아군은 심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 나는 진한장과 오진민에게 급전된 전투상황을 설명해준 다음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계선에서 철수하여 유인전으로 적들을 소멸할 새로운 전술적방안을 제개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우리 부대는 현성 서남쪽고지를, 구국군부대들은 관둔자 남쪽 무명고지를 차지하고 추격해오는 적들을 매복전으로 섬멸하였다. 불리하다고 보았던 사태가 순간에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된 구국군부대 병사들은 사기충천하여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였다.

일본당국의 보도관계가 심한 때여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출판물들은 이 전투에 대해서 별로 소개하지 않았다. 세상사람들은 망국 스물두돐이 되던 그해 초가을에 돈화에서 그런 전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돈화현성전투는 1933년 9월에 있은 동녕현전투와 성격상 류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돈화현성전투가 구국군과의 련합으로 진행된 것처럼 동녕현성전투도 구국군주력과의 합작으로 설계되고 성사된 전투였다. 규모로 보아도 돈화현성전투는 동녕현성전투와 어슷비슷하였다. 그러나 돈화현성전투는 조중인민의 공동투쟁력사에서 항일유격대가 중국반일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일본군을 타승한 첫 현성전투라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사람들은 청, 로 두 대국을 일거에 격파한 일본의 군사적명성앞에서 너무나도 혹독하게 위축되었더랬소. 그런데 오늘은 그 위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소.

령토해방에 앞서 정신해방을 이룩하였단 말이요.≫

진한장은 분명 나를 포옹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혀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성주, 우리 이 길에서 영영 헤어지지 말자구!≫

그는 내 손을 그러잡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그가 이 길이라고 한 것은 공동투쟁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진한장은 그후 전사할 때까지 자기자신이 선창을 뗀 이 서약에 충실하였다. 돈화현성전투가 있은 후 한주일가량 지나서 우리는 구국군과 함께 액목현성을 습격하였다. 아군은 이 전투에서도 역시 승리하였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않은 싸움이었지만 그 총성이 남긴 여운은 컸다. (끝)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1)

로동신문 정론 - 주체91, 4월 17일

이 강산에 주체의 태양이 솟아 올라 아흔번째의 봄이 왔다.

가정과 일터마다에, 거리와 마을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의 숨결이 차넘치고 있으며 민족의 만복의 고향인 만경대로 향한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오가 도도히 굽이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눈물의 아리랑으로 흐르던 민족사가 행복과 긍지의 아리랑 차넘치는 민족사로 바뀌였음을 노래하는 세계적대걸작, 온 지구에 요란한 관람의 열망을 몰아 오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마침내 웅장화려하게 펼쳐 졌다.

인류의 태양을 흠모하여 터치는 만민의 열화 같은 노래춤무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스무번째의 막을 올리였으며 대륙과 대륙의 곳곳에서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벗들이 다함 없는 경모와 추억의 정을 안고 평양으로 모여 들었다.

이 벅차고 환희로운 나날속에 우리가 제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력사의 진리이다. 하나의 소박한 부름으로 절세의 위인의 한평생을 칭송할수 있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모두의 가장 절절한 부름은 그이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라는 부름이다.

수령님을 잃고 보니 그이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 하는것을 더욱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된다고, 수령님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예속의 나락에서 자주의 상상봉으로, 가난과 치욕의 미궁속에서 행복과 존엄의 절정에로 이끌어 올려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하여 인민의 어버이라고 한 없는 신뢰와 친근감에 넘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력사의 위인들에게는 거룩한 호칭들이 있었다. 전설적영웅이나 백전로장, 탁월한 전략가와 같은 호칭들과 함께 전해 져 온 위인들의 전기들도 있었다.

인류사상 가장 걸출한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께는 시대와 인민이 드린 호칭들이 많았다. 절세의 애국자, 빨찌산 김대장, 불세출의 영웅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시며 만고에 길이 빛날 불멸의 자욱과 업적을 새겨 오신 **김일성**동지,

우리는 그 많은 호칭들가운데서 그이와 인민, 그이와 시대, 그이와 력사를 하나로 굳게 맺어 준 가장 위대하고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칭호가 바로 인민의 어버이라고 말한다.

력사를 돌이켜 보자.

위인들의 이름과 함께 시대가 엮어 지고 한 민족의 성패가 좌우되였다. 파란 많은 인류흥망사의 갈피를 번져 보면 뛰여 나다고 하는 지도자, 정치가들은 그 얼마였던가. 자본주의암흑천지에 무산계급해방의 불길을 지핀 위인들도 있었고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몰아 오던 참혹한 세계대전을 정의의 승리로 결속한 명장들도 있었으며 장구한 무장항전으로 식민지조국에 독립의 서광을 안아 온 민족적영웅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처럼 력사가 낳은 모든 사상의 천재, 군사의 대가, 정치원로들도 지녀 보지 못한 숭고한 인민적호칭을 지닌 그런 수령은 없었다.

인민의 어버이,

세상에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부름으로 칭송되는 수령은 없었다.

생존해 계실 때에는 물론 떠나가신후에도 인민의 마음속에서 친근한 어버이로 그토록 뜨겁게 불리우시는 우리 수령님,

인류사의 흐름에 휘황한 등대로 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민에게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거룩하고도 빛나는 업적과 풍모가 인민의 어버이라는 이 부름속에 다 집약되여 있다.

인민의 어버이,

그 짧은 부름에 조선의 5천년민족사의 무게가 실려 있다. 남달리 슬기롭고 근면한 인민으로 인류문화의 화원에 이채로운 꽃송이들을 피워 놓으며 력사의 줄기줄기를 기운차게도 넘어 온 우리 민족이였다.

그 유구한 력사에는 약소민족의 처참한 비화들도 많아 백성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나라가 무서운 재난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들기도 하였다. 이 땅에 봄이 와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차디찬 겨울뿐이였고 해빛은 따스히 내리비쳐도 겨레의 등은 몹시도 시렸다.

하여 이 나라 인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고 운명을 빛내여 줄 위인을 기다려 가슴을 태웠고 그런 위인을 온넋을 다해 칭송하고 따를 날을 부르며 목을 태웠다.

그전날 이 나라의 력사는 그대로 피바다, 눈물의 대하였다.

남들이 기계제산업의 거센 흐름을 타고 문명의 길로 달음치고 있을 때 대국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된 이 땅에서는 무수한 생명들이 속절없이 꺼져 버렸고 식민지노예의 무거운 멍에를 벗을 길 없는 인민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흘러 보냈다.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부모 잃은 고아의 설음, 풍랑속의 쪽배와 같은 불행을 털어 버리게 되였을 때 인민이 쌓이고 쌓인 열원을 터쳐 부르게 된것이 바로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라는 부름이였다.

수령이 인민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행복과 번영의 요람을 마련해 주는것이다.

식민지망국으로부터 자주독립국가에로의 극적인 전환을 안겨 주신 우리 수령님은 이 세상 제일 고맙고 은혜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노예였던 이 나라 겨레를 광복조국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내세워 주시고 태양의 한품에 안아 하나의 대식솔로 꾸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조선의 구세주, 민족의 태양이시였다.

인민의 어버이,

이것은 수령님과 함께 혁명의 천만리, 조국번영의 천만리를 헤쳐 오면서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다함 없는 신뢰와 뜨거운 신념의 분출이다.

어버이라는 말은 결코 화려한 시어가 아니다. 운명의 피줄기가 하나로 이어 져 있고 혈육보다 더 가까운 강렬한 사랑과 정이 진하게 넘쳐 흐르는 이 말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격동, 인위적인 미사려구로는 도저히 울릴수 없다.

력사의 진실한 체험에 뿌리를 둔 이 세상 가장 순결하고도 고결한 부름인 인민의 어버이,

우리는 항일의 혈전만리, 전화의 불길만리, 천리마의 폭풍만리, 사회주의건설의 창조만리를 헤쳐 오면서 인민의 어버이라는 이 말의 무게를 심장으로 새겨 안았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쉬임없이 달리시며 력사의 매 시기마다에 거창한 전변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시고 조선을 이끌어 20세기를 떨쳐 오신 어버이수령님,

땅도 남의 땅, 공장도 남의 공장이여서 제 마음껏 땀을 쏟지 못하고 제 마음껏 조국사랑의 시구를 터뜨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나의 땅, 나의 공장, 우리의 제도, 우리의 조국이라 긍지높이 웨치게 되였으며 이렇듯 극적인 운명전환의 대문을 열어 주신 자기의 령도자를 우러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스스럼없이 부르고 따르게 된것이다.

우리에게 당을 주시고 공화국을 주시고 혁명무력을 주시였으며 **김정일**강성대국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창하고 눈 부신 그이의 공적을 몇백만권의 책에 담은들 끝이 있겠는가.

인민이 진정으로 나의것, 우리의것이라고 부를만큼 생명과도 같고 생활과도 같은 소중한 그 모든것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 칭송과 격찬의 감정이 바로 인민의 어버이라는 하나의 부름에 다 비낀것이 아니랴.

위대한 사상을 주시고 위대한 사랑을 펴시며 생애의 마지막기슭까지 무한한 헌신의 자욱을 찍어 가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불비 쏟아 지던 전화의 그 나날 전선에로 모든것이 집중되던 엄혹한 시각에도 인민생활때문에 잠 못 이루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한 경제일군을 부르시여 주신 가르치심, 가정주부들이 아침 일찍 일어 나 제일 먼저 손에 잡는것이 무엇인줄 아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성냥이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고생 많은 인민들이 성냥이 없어 안타까와 하지 않도록 성냥문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이 하나의 가르치심에만도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다심하고 뜨겁게 흐르고 있는것인가.

지금도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일해 온 한 일군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들려 준 이야기가 있다.

80고령에 이르신 어느 한달동안에만도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과 관련된 회의를 여러차례나 지도하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피로가 쌓이고 목이 갈릴 때마다 물을 마셔 가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모습,

세계에는 인민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민족의 해방과 국가의 번영을 일생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눈물도 흘리고 위험한 고비도 주저없이 넘은 완강하고 성실한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외교적활약으로 아무리 세상에 명성을 떨치고 고생 많은 모습으로 아무리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여도 그리고 장중한 추도곡의 울림과 함께 수많은 군중이 연도에서 쏟는 눈물의 격류속에 세상을 떠났다 하여도 인민의 어버이라는 심장의 호칭만은 지니기 힘들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같이 혁명의 개척기부터 승리와 번영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유년기부터 로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렇듯 한생토록 변함없이 진실하고 순결하게, 그렇듯 진함없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바쳐 오신 그런 령도자만이 인민의 어버이라는 부름으로 력사와 인민의 최상최대의 평가를 받을수 있었다.

(내일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회 - 학사 김창호 선생 주체91, 4월 17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하자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올해의 4월은 주체위업의 완성과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에 즈음해서 만민의 뜨거운 추억과 다함없는 칭송의 날과 날들로 이어진 의의 깊은 달입니다. 경사로운 4월 15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로부터 온나라 방방곡곡은 물론 위도와 경도를 넘어 세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2월까지 이번 학년도 교육강령에 예견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과목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의는 모두 180회에 나누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론강의로써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는 편의상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는 어떤 역사이고, 왜 그이의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해야 하는가. 이렇게 두가지 문제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으로 일관된 역사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어느 높이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이의 좌우명 하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그이의 좌우명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태양이시고 자신은 태양의 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이였던 맑스가 서거한 후 그의 후계자였던 엥겔스는 한 벗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한평생 제2바이올리니스트였다. 제2바이올리니스트라면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본다. 뭐니뭐니 해도 맑스의 제1바이올린이 뛰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맑스를 대신하여 제1바이올린은 켜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라고 썼습니다. 엥걸스가 쓴 편지를 요약해 보면 맑스가 제1바이올리니스트고 자신은 제2바이올리니스트라는 것입니다. 엥겔스의 이 좌우명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제1바이올리니스트든 제2바이올리니스트든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좌우명은 참으로 높은 상상봉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태양이시고 자신은 태양의 전사이라는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 이것이야말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지니신 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역사 매 갈피갈피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계승자의 역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색과 실천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데 바쳐오고 계십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위업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영도의 자욱을 옮기신 그날에 벌써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실 굳은 결심을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높이 추대되신 이후 시기에 어버이 수령님의 뜻대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오셨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실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 하신 단위들을 그 어느 단위보다 더 자주 찾으시고 그 단위들이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계승완성하실 우리 장군님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정치가가 등장하면 정책전환이 뒤따르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선임자를 헐뜯고 그 업적을 말살하려고 한 정치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례는 부르조아 정치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들의 정치사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계승성 있는 영도로 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노선과 정책들이 일관하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노동당 건설과 활동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당건설이론대로 해 나가도록 하셨고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군대도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로 강화발전 시켜주셨고 우리 민족도 ≪**김일성** 민족≫으로 빛내여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9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도 ≪**김일성**헌법≫으로 법화해 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갈라진 우리 조국을 통일하는 사업도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계승자의 역사입니다. 하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라는 말만 없으면 모든 것이 수령님의 생전시와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들은 우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해서 그이에 대해서 잘 알 때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태양을 모신 크나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저절로 부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는 다음으로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뜨거운 사랑으로 일관된 인민의 참다운 지도자의 역사입니다. 참다운 지도자의 품격은 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됩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서 인덕이 없으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인덕이 있는 위인을 좋아하며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참말로 우리의 장군님은 인류역사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역사를 수놓아 오시는 참된 인민의 지도자이십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사상이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며 정치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이께서 펴시는 정치를 놓고 봐도 언제나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시고 그리고 인민들은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내세울 뿐만아니라 그들의 운명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이의 혁명역사 전 과정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를 왜 깊이 학습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 과목은 그이의 위인상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므로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따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이의 혁명역사에는 그이께서 언제, 어디서 탄생하셨고 그이의 혁명적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리고 중학교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이께서 진행해오신 혁명활동이 역사적으로 시기별로 모두 수록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를 그이의 위인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종합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해서 그이에 대해서 잘 알 때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태양을 모신 크나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저절로 부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긍지와 자부심에서 표현됩니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긍지와 자부심에서 기본은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을 떠나 해외에 갔을 때 우리 민족을 하찮게 대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좋을 수 없고 분격해 질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 민족이 낳은 희세의 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부르며 엄지손가락을 들고 제일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이건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청강생 여러분들은 주체83(1994)년 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였던 카터가 평양을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거룩하신 풍모 앞에서 완전히 매혹되여 가지고 ≪**김일성**주석께서는 마치도 미국의 초기 대통령이며 가장 명망이 높았던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모두를 합친 종합체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칭송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접할때면 우리 민족 모두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셨을 때 가장 긍지높이 받아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기에 해외에 사는 한 교포언론인은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해서 쓰면서 ≪조선민족의 현대 역사는 위대한 민족이 위대한 수령을 낳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민족을 낳으며 수령만 잘 만나면 작은 나라도 강성대국이 된다는 주체의 진리에 대한 웅변적 선언이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썼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해야 하는 것은 또한, 그이의 위대한 혁명역사가 우리 시대의 혁명하는 나라와 사람들 모두가 따라배워야 하는 삶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이의 혁명역사에는 그이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를 현명하게 이끄신 영도방법과 전략전술적 문제로부터 혁명가는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집약되여 있습니다. 그이의 혁명역사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물론이고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도 다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민족의 밝은 앞날과 통일된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21세기의 태양으로 모신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이의 혁명역사를 꾸준히 학습하고 또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 밀영에서 탄생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 좋아하지 않는 대선후보는 없을 것?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의 묘한 발언, 해명인가 압박인가

토머스 C.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의 미묘한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허바드 미국대사는 18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강연에서 ≪미국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불안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패널리스트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현재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후보는 없다고 본다. 미국은 노무현 후보가 불안한 인물로 보여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허바드 대사는 또 지난 4일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올해 한국 대선에서 미국의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고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지도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한 발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해명을 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박정희 대통령이후 3김이 부상한 것처럼 DJ 이후에는 새로운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언급한 게 아니겠는가?

켈리 차관보의 발언이 노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선은 전적으로 한국내 문제이다. 한국의 차기대통령이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새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허바드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외형상 며칠 전 켈리 차관보의 발언이 국내에서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해명으로 비친다. 켈리의 발언은 분명 내정간섭적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가일각에서는 허바드 대사의 이날 해명을 ≪노무현 후보의 실체 인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해석은 특히 여권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허바드 대사의 이날 발언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역시 미국정부의 묘한 압박성 뉴앙스가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보다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버드 대사는 이날 ≪묘한 논법≫을 전개했다.

토머스 C.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우선 그는 ≪현재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후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전제 논리 하에서 ≪미국은 노무현 후보가 불안한 인물로 보여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후보는 안된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하다. 따라서 노무현 후보도 미국을 좋아해야 하며, 그럴 때에만 노후보를 불안한 인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메세지 전달로도 해석가능하다.

재미언론인 김민웅씨는 얼마 전 본지에 기고한 컬럼에서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단언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 허바드 대사의 발언 역시 고도의 ≪노무현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과연 한국의 대선후보는 반드시 미국을 좋아해야 하는가.

만약 지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미국의 F15 강매 압력 같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만약 한국의 대선후보가 한국민 편에 선다면, 미국은 이 후보를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후보로 규정할 것인가.

허바드 대사의 이날 발언은 우리 정치권,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반대로 미국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화두를 던진 문제발언이

박태견기자
프레시안 2002/04/18

F-15K엔진 상호 운용성 문제 커

국방부가 차기전투기로 미 F-15K를 사실상 결정한 데 이어 이 전투기 엔진을 F-15에 전혀 장착되지 않은 미 제너럴 일렉트릭(GE) 제품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가 평소 주장한 ≪상호운용성≫ 원칙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18일 ≪차기전투기 F-15K에 들어갈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9와 프랫 앤드 휘트니의 F100 두 종류가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 분위기로는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이 내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도 최근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F-15에 장착해 3000시간 시험비행을 해보니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공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은, 미 공군은 물론 전세계에서 운용중인 F-15에 단 1대도 장착되지 않은 반면, 한국 공군의 전체 F-16 전투기 150여대에는 프랫 앤드 휘트니의 F100 엔진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항공기 제작업체는 F-16을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난 94년부터 프랫 앤드 휘트니 엔진을 조립해와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선택할 경우 엔진 국산화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19일 오후 차기전투기 사업 2차 기종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미 보잉의 F-15K로 결정될 게 확실시된다.

김성걸기자
인터넷 한겨레 2002/04/18

면회소 설치 남북 적십자회담 추진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될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면회소 설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통일부 장관은 18일 이북5도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이북5도청에서 주최한 특별강연회에 참석, ≪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회담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은 행사성이 아닌 면회소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면회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는 별개로 지난해 두차례 실시됐던 남북간의 생사.주소확인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북5도민들에게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답사대가 금강산을 찾아 상봉장소로 이용될 금강산여관은 물론 여러 곳을 돌아봤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강산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합의된 것과 관련, ≪북측은 우리측에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다≫면서 ≪이것

(금강산 상봉)을 잘 끌어가면 상설 면회소로도 발전시킬 수 있고 도라산역에도 면회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임동원특사 방북시(3-6일)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에 등장한 ≪동해안 철도.도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새롭게 동해선도 연결합시다≫고 밝힘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북측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업무≫라고 말했다.

심규석기자
연합뉴스 2002/04/18

국회의장, 남북 국회회담 제의

이만섭국회의장은 18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연합(AAPP)≫ 총회 2차 본회의에서 ≪특사 방북을 통해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추진위와 군사당국 자 회담 재개 등에 남북이 합의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 한 개최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남북이 합의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족간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가게 될 것≫이라며 ≪남북 국회회담은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이 의장은 16일 이번 총회에 이북대표 단장으로 참석한 김수학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고 이날 오전엔 리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접촉, 회담 성사를 위한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 이날 오후 대표연설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고형규기자
연합뉴스 2002/04/18

위선적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확산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기반 주5일근무제 도입반대

노사정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오후 노사정 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에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는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 야합저지 -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간부 결의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간부들은 주5일 근무제 관련 실무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 노사정위 6층 소회의실 앞에서 야합에 의한 회의는 그만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장영철 노사정 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노사정위를 찾은 15여명의 민주노총 간부들은 오후 2시 민주노총 간부 결의대회가 시작될 때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소회의실 앞으로 몰려가 ≪노동자를 무시하면서 노동계 대표라고 앉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밖으로 나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점거하냐며 노사정위 측이 경찰에게 입구를 봉쇄해 줄 것을 요청, 민주노총 간부들은 회의실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민주노총 측은 ≪노사정위가 노동계의 방문을 경찰로 막고 있다는 것이 말이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실무 고위급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김송자 노동부 차관, 조남홍 경총 부회장, 노사정위 위원들이 참석,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의 민주노총 간부들의 항의가 거세자 문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민주노총 간부들이 회의실 앞을 떠나자 재빨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한편, 오후 4시경 장영철 노사정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노조측의 주장에 장위원장은 ≪여러분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동시에 하나증권 빌딩 앞에서 열린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쟁취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임시비대위 이수호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노동조합을 가장한 사이비 노동조합≫이라고 지칭하며 단계별 주5일 근무제 실시,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 휴가 축소 등 경영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헛되게 하는 ≪불합리한 형태의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과연 노동자의 대표일수 있겠냐≫며, 불평등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2시부터 열렸던 주5일 근무제 관련 산별 대표자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임금·노동조건이 저하되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2010년까지 9년간 단계별 도입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축소 등 경영자측이 주장해온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으로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한국노총의 발표는 ≪겉과 속이 다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은 ≪한국노총이 10여년동안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노동자를 위한 주5일 근무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까지 정부와 경영자측의 요구대로 주5일 근무제를 합의하려는 것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대로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주5일 근무제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등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때까지 민주노총은 투쟁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을 담보로 하는 주5일 근무제가 합의될 경우, 4월말 총파업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8

울산, ≪노동자 정치의 메카≫로 떠오르나

시장 선거 등 ≪노동자 후보≫ 대거 출마 예고, 지자체 선거 앞둔 경선에 51명 후보자 각축

노동자들의 도시, 울산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꿈틀거리고 있다.

울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이 광역시장과 단체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다수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이 공동으로 후보를 출마시켜 구청장 2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의원과 구의원을 배출한 저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기대가 크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가 각각 지방선거 출마 희망 후보자 51명에 대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현대미포조선노조 조합원들의 투표현장

울산지역은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민주노총 조합원 5만8492명과 민주노동당 당원 1261명(민주노총 조합원과 중복 당원 2000여명 제외)을 합해 총 6만여명이 참여하는 한판 선거 축제가 기획돼 있다.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선거를 시작으로 2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울산 예비경선에 지금 진보진영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 당선, 북동구 구청장 당선, 시의원6석, 군구의원 다수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전초전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모두 51명. 이중 시장 후보를 포함한 광역단체장 후보 9명. 시의원 15명, 구의원 27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시장 선거에 이외에도 관심을 끄는 지역은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배출한 북구와 동구. 북구에서는 조승수(39) 현 구청장과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범(45)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동구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갑용(44) 후보와 현대중공업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한 조규대(54) 후보가 맞붙었다.

예비경선투표를 앞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노동운동의 메카≫ 울산을 ≪노동자 정치의 메카≫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울산 노동자들의 소망을 응축적으로 표현한 문구이다. 과연 이 소망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서울로 전해지는 말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는 소식뿐이었다.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들려준 이야기다.

≪6만여명이 참여하는 경선치고는 분위기가 전혀 뜨지 않고 있어요. 투표하는 것 모르는 조합원이 수두룩합니다. 이래 가지고 투표율이 50% 넘을지 모르겠어요. 2000년 4·13 총선후유증 때문인지 시장 후보간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2000년 4·13의 후유증,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진보진영 내부의 상식 밖의 분열로 인해 무너졌던 기억.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 있다는 건 분명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었다.

아무래도 이번 울산시장 예비 경선의 승패는 선거인수 2만3808명을 가진 현대자동차 노조와 1만 9044명을 보유한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장 조합원들은 선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입장에서도 이번 예비경선투표가 총회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선거인수 중 과반수가 넘어야 투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원들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울산 예비 경선에 쏠리는 외부적 관심에 비해 내부적 관심은 적은 편이다.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에서 찾는다. 그 갈등이 경선 일정을 한없이 늦추게 만들었고, 선거운동 제한으로 경선 답지 않은 경선을 만들었다는 것.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98년 6·4 지방선거 때처럼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내부결속을 추동해낼 수 있는 쟁점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형사고≫는 없겠지만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예비경선 결과를 축으로 진보진영이 단합하지 않는다면 98년 지방선거 때와 같은 ≪바람≫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한 노동운동가는 향후 양진영이 예비경선투표 결과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선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 노동자들은 돌아섭니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보진영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뒷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이 발벗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000년 4·13 총선 결과를 두고 울산에 있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4·13 총선에서 윤두환이 껌을 주웠다≫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했다. 민주노동당이 차지할 의석이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어부지리로 돌아간 것을 빗댄 이야기다.

희망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흩어질 것인가. 울산은 지금 ≪노동자정치의 메카≫를 향한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다.

박수원기자
오마이뉴스 2002/04/18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 (4)

서론
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 수정
6.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 7.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 공동선언의 지향
▶ 8.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 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7.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 공동선언의 지향

우리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적대와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룬다면,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이 조작·유포한 ≪남침설≫은 수포로 될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드센 생활력은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의 ≪남침설≫에 일대 타격을 가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는 평양에 찾아간 김대중에게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는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겳訣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궜 선언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과정은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이 조작·유포한 ≪남침의 공포≫를 소멸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침의 공포≫가 소멸되면 미제의 신식민지 점령을 ≪안보유지≫라는 사기극으로 은폐해 온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의 기만술책은 파탄될 것이며, 그로써 미제는 자기의 점령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미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점령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상실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미제의 그러한 우려를 간과하고 겗 ㅐ 국방위원장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였다궐 허무맹랑한 헛소문을 유포하면서 미제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식민지에서 지역통일전선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운동을 심화·전진시키면 미제 점령군의 ≪주둔명분≫을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신식민지에서의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운동은 지금 당장 점령군철거투쟁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그 운동에 의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실현되면 미제 점령군의 존재근거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에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면 미제의 민족분열주의정책은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미제의 점령군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미제의 신식민체제는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운동은 지금 당장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정치강령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그 운동 속에 용해되어 주동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운동을 확대·강화시키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운동으로 상승·발전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는 대로, 선군혁명전략은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워 민족해방혁명의 무혈승리로 미제를 굴복시키고 미제의 점령군을 철퇴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는 광대한 통일전선은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여 미제의 점령군에게서 존재근거를 박탈함으로써 그 점령군을 철퇴시키는 방조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호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선군혁명전략과 6.15 공동선언은, 놀랍게도 통일적인 영도에 의하여 하나의 일관된 전략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분리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역량을 발산하면서 역사의 중심축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영도체계로 결합되고 있으며,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자주화의 지향을 향해서 거대한 투쟁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기에 전개되는 미군철거투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의 의식이 차츰 반미자주적으로 개조·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조·발전의 추세는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자각과 자주적 삶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생겨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조선민족과 미제 사이의 적대적 모순은, 이제까지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이 교묘하게 은폐해 오고 있지만, 저들이 언제까지나 은폐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은폐시킨 적대적 모순은 미제의 신식민체제가 반제혁명역량의 전략적 공세에 밀려 동요할 때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차츰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과 미제 사이의 적대적 모순은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순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미제의 군사적 점령입니다. 그러므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투쟁은 조선민족과 미제 사이의 적대적 모순의 폭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적대적 모순의 발화점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반미자주의식입니다. 발화점이 없이는 아무리 폭발력이 큰 모순이 존재하더라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당면문제는 발화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발화점은 인민대중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반미자주의식을 고양·확산시키는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전술적 공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식민지에서 전술적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전위조직을 영도적 구심체로 하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보전·축적하고 점차 확대·강화시키면서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정치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신식민지에서 보전·축적, 확대·강화되고 있는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은 장차 전략적 공세기가 도래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격하게 될 것입니다.

현 시기 전술적 공세를 취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신식민지 사회 전반에서 은폐된 조선민족과 미제 사이의 적대적 모순이 연이어 노출·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식민지의 인민대중 속에서 반미자주의식이 확산·고양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반미자주의식으로 무장할 때, 미군철거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8.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자주적 민주정권은 통일전선역량의 기반 위에서 수립됩니다. 그러므로 자주적 민주정권은 노농독재정권이 아니라 통일전선의 정권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새로운 형의 혁명정권입니다. 새로운 형의 혁명정권이라는 말은, 프롤레타리아혁명정권도 아니고 부르조아혁명정권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프롤레타리아혁명정권과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그 두 혁명정권이 상호배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그 두 혁명이 상호배치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통일전선적 정권이므로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혁명정권은 아닐지라도, 프롤레타리아혁명정권의 넓은 범주에 속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미제의 점령군을 격퇴해야 그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 있으며,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어야 그 정권이 승리단계에 들어선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식민정권이 존속하는 조건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이 병존하여 수립될 수 없습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신식민정권의 무덤 위에 수립됩니다.

필자가 지난해에 발표했던 논문에서는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면 그것으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된다고 논한 바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므로 수정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완수가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적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고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여야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그 정권이 미제가 만들어놓은 신식민지 조약, 협정, 양해각서 따위들을 전부 파기할 것이며, 미제의 앞잡이 민족반역세력을 척결하고 신식민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함으로써 민족해방혁명을 높은 단계에서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그 정권이 미제와 민족반역세력의 낡은 신식민체제를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새로운 체제, 곧 민중민주주의체제로 전면개조하는 민주주의혁명을 높은 단계에서 완수하게 됩니다. 또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그 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정권과 힘을 합쳐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중앙연방

→

정권을 수립해야 연방제 통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6.15 공동선언에 따라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지역통일전선이며 자주적 민주정권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는 진보적 대중정당입니다. 연방통일정부의 정치적 기반은 전국적 통일전선이며, 연방통일정부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사회주의정권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기 이전에 이미 연방제 통일이 낮은 단계에서 실현되기 시작하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이 높은 단계에서 완성됩니다. 연방제 통일이 낮은 단계에서 실현되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승리는 곧 연방제 통일의 완수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른바 ≪선혁명 후통일론≫이나 ≪선통일 후혁명론≫은 모두 이치에 닿지 않는 논법으로 됩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최종적 완수, 민주주의혁명의 심화와 진전, 연방통일정부의 공동수립, 이것이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역사적 임무입니다.

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1)

위에서 논한 대로, 우리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은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위업을 위하여 복무하는 통일전선입니다. 이 통일전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전국적 범위에서 형성되는 광대한 전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미제의 분할점령 때문에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광대하고 통일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하지만,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조건은 신식민지에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별도의 당면과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민족민주연합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 개념과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식민지에서 형성되어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존속하게 될 지역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면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해소・통합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존속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아직 승리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혁명의 준비기에 지역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전국적 통일전선의 축성을 위해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더 요구되지 않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지역통일전선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기 위한 전망을 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은, 대외적으로는 혁명과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민족반역세력과의 투쟁이며, 대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다고 떠들면서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는 교조주의자들, 혁명의 길을 가로막고 개량주의, 타협주의를 설교하는 기회주의자들, 파벌의 주도권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파주의자들, 공명심과 개인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운동권 출세주의자들과의 투쟁입니다.

전국적 통일전선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력이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가로막혀 신식민지에까지 진공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조건에서, 신식민지에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을 주동적으로 전개하는 임무는 전위조직을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적 구심체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식민지에서 형성되는 지역통일전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형태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민족민주운동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업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있어서 장래의 과업이 아니라 당면한 실천문제로 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의 연합체 정도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지역통일전선과 민족민주운동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집결시키고 그 지역통일전선 속에 자기를 용해시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지역통일전선조직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조망하면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과업에 민족민주운동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역량을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데로 집중시키고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과업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될 수 있으며, 또 오늘의 변화・발전된 혁명정세 속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며, 유력한 조직형태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투쟁은 지역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는 투쟁으로 됩니다.

셋째로, 지역통일전선조직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병존하여 건설하되, 지역통일전선조직에게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진보적 대중정당에게 방조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식의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역통일전선조직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병존하여 건설하고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과업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고 신식민정권을 타도하여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인데, 그러한 혁명임무를 완수하려면 혁명의 주체가 정권을 쟁취・장악하고 정권을 혁명의 무기로 하여 투쟁하면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정권을 쟁취・장악한다는 말은 미제의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한다는 말입니다.

신식민지에서 정권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힘을 합해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통치기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조건에서 지역통일전선이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통일전선적 정당이 통일전선조직보다 더 유리한 것은 자명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자주적 민주정권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을 떠나서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논할 수 없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라면, 자주적 민주정권은 지역통일전선을 모체로 하여 수립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각 정파들이 연대・집결된 운동권의 정당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주축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연대・집결된 대중정당, 다시 말해서 지역통일전선의 광대한 대중적 정치기반 위에 건설되는 통일전선적 합법정당입니다.

지금 민족민주운동권 일각에서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민족민주정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만일 그 명칭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정당이라는 협애한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면 오류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운동권을 중심에 포괄하는 더 큰 전선운동역량으로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에 기반을 두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도 아니고 자본가계급의 부르조아정당도 아닙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근로대중 전체와 중간계층은 물론, 애국적 민족자본가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정치세력을 묶어 세운 중간정당입니다.

노동운동권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 ≪노동자의 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오류입니다. 노동자의 계급정당이라는 개념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라는 개념과도 다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노동자의 계급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고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포괄하는 근로대중의 정당에서 출발하여 차츰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노동계급으로 개조해 가는 정당입니다. 그러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미제의 신식민지에서는 건설될 수 없으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된 이후에 건설해야 할 미래의 당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미제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민족적 자주성을 쟁취하는 민족자주정책을 추진하고 민족반역세력에게 빼앗긴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민주개혁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이며, 근로대중 전체와 중간계층은 물론, 애국적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적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진보성은 그 정당이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의 정치조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구성하는 조직적 중심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기치로 든 민족민주운동세력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기치로 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연대・집결하는 매우 폭넓은 인민대중의 정치조직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한다는 말은, 현존하는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을 해체하고 무조건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에 나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조직적 중심으로 하여 건설해야 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까지 민족민주운동권 내부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극복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근로대중 전체와 중간계층의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광대한 대중적 정치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비상한 노력과 투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현존하는 민족민주운동권이 자체역량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주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당면과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계급계층별, 지역별로 각이한 운동조직들을 결성하고 있지만 내외의 복잡한 조건 때문에 조직적으로 연합・단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단결이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추구하는 각이한 운동조직들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투적 대중조직들이 노농동맹세력을 주축으로 하여 하나의 정치강령, 하나의 조직체계로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 단계에서 노농동맹세력을 구성하는 양대 조직은 ≪민주노총≫과 ≪전농≫입니다.

(내일 계속)

대표집필자 최성원